

수협 탐방

<7>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폐사어 유기질 비료 생산 성장 발판

완도·진도 등 서부 양식업자 중심 조합원 453명

활어 브랜드화·직거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선도

횡감으로 이용되는 광어. 자연산도 일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양식산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청정 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광어는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비린내가 적고 쫄깃한 육질이 단맛으로 유명하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심에 있는 완도에는 팔딱 팔딱 막 잡은 광어처럼 싱싱하게, 양식어가와 한마음이 되어 뛰고 있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 김양곤)이 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완도와 해남, 진도의 양식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남 서부 8개 시·군 200여 조합가구 453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건설한 조합이다. 지금은 제대로 된 격과 틀을 갖췄지만, 조합의 시작은 초라했다. 지난 2000년 초 당시 여수시 소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완도지점이었으나 지역간 계층간 갈등 극복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독립한 '새끼 조합'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분할때 발생한 결손자금에다 경제사업 대손충당금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미처리결손금까지 떠안아 손자본비율이 마이너스 20% 이하로 떨어져 '적기 시정조치 조합'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호금융 취급 규제도 협동조합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일하면 길이 있는 법.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양식수산물의 홍보와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완도산 광어의 글로벌 유통과 명품 브랜드화를 추구하며, 완도군 축적 농공단지 양식장 폐사어를 활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을 갖추는 등 발전적인 행보를 거듭해 왔다.

지금의 수협이 되기까지는 양식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가적 수완을 갖춘 김양곤 조합장의 노력이 컸다. 넓지 양식에 관한 성공한 양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조합장은 임·직원과 하나된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활어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적극적

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 2012년 국내 최대 활어시장인 인천수산물유통업 협동조합과 직거래를 시도하는 등 판매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비조합 유통업자들에 의한 피해와 생산자의 손실을 줄이고, 위판질서 확립을 통해 조합 활성화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어류양식장에서 자연적으로나 재해로 발생하는 폐사어를 이용한 유기질비료화공장은 조합의 성장에 큰 힘이 됐다. '장보고'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혼합유기질 비료는 광어어분 50%와 식물성 유기질 50%가 배합되어 20여종의 특화된 제품으로 제작되는데, 전남도 농가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연간 1500t이 넘는 폐사 광어를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양식 농가의 처리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조합의

수익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회생 결정 이후 꾸준한 수익 개선을 통해 회원 지원자금 21억을

확실히 갚아 나가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2016년이면 자본잠식에서 탈피해 조합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 궤도에 오른 유기질 비료 사업의 매출이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돼 정상화 과정이 좀 더 단축 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취약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회수에도 중점 농가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연간 1500t이 넘는 폐사 광어를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양식 농가의 처리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조합의

수익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회생 결정 이후 꾸준한 수익 개선을 통해 회원 지원자금 21억을

확실히 갚아 나가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2016년이면 하반기 2016년이면 자본잠식에서 탈피해 조합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 궤도에 오른 유기질 비료 사업의 매출이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돼 정상화 과정이 좀 더 단축 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취약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회수에도 중점 농가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연간 1500t이 넘는 폐사 광어를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양식 농가의 처리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조합의

수익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회생 결정 이후 꾸준한 수익 개선을 통해 회원 지원자금 21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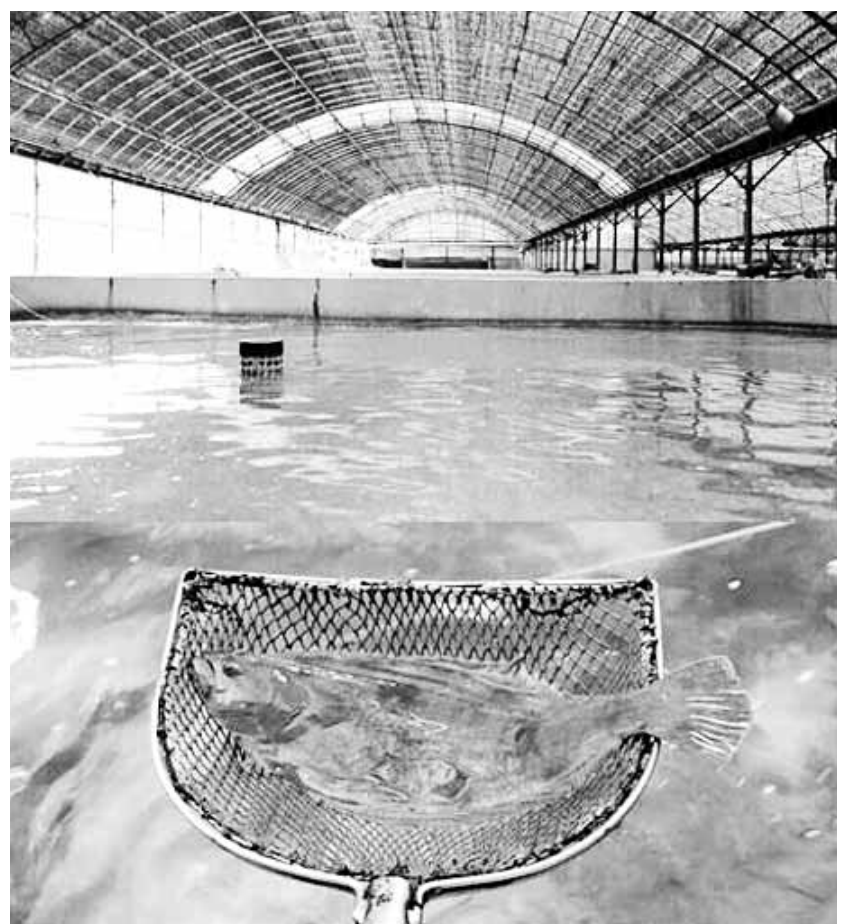


김양곤 조합장

확실히 갚아 나가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2016년이면 하반기 2016년이면 자본잠식에서 탈피해 조합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 궤도에 오른 유기질 비료 사업의 매출이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돼 정상화 과정이 좀 더 단축 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의 취약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회수에도 중점 농가의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연간 1500t이 넘는 폐사 광어를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양식 농가의 처리 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조합의

수익을 증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회생 결정 이후 꾸준한 수익 개선을 통해 회원 지원자금 21억을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인 광어는 완도 앞바다의 청정수와 친환경 양식 배합사료를 사용해 체계적인 관리로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완도군 신지면 금원수산 광어 양식장의 광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제공>

전남 어업생산량 전국 점유율 최근 5년 8.4% 증가

작년 기준 46.7%...참조기·민어·전복·미역 등 10개 품목 생산량 전국 1위

전남이 참조기·민어·전복·미역·뽕잠자 등 일부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10개 품목에서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최근 5년간(2009~2013) 전남 어업생산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최근 5년간 참조기·민어 등 어류, 전복·꼬막 등 패류, 미역·김 등 해조류, 뽕잠자·자라 등 내수면 어종, 젓새우·흰다리새우 등 갑각류 등 총 10개 품종의 평균 생산량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0품목의 생산량(점유율)은 참조기 2만 3777t(60.2%), 민어 2752t(56.7%), 전복 6623t(97.1%), 꼬막 2602t(59.2%), 미역 32만 2005t(90.4%), 김 22만 7781t(75.0%), 뽕잠자 3799t(60.1%), 자라 94t(47.7%), 젓새우 1만 4443t(78.1%), 흰다리새우 1898t(68.1%) 등이다. 또 전남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어업생산량은 총 109만 3000t(일반해면어업 16만 4000t, 천해양식어업 92만 2000t, 내수면어업 6291t)으로 전국(260만 5000t) 대비 점유율은 42.0%다.

전국대비 전남의 어업생산량 점유율은 2009년 38.3%에서 지난 2013년에는 8.4% 포인트 증가해 46.7%를 기록했다. 또 어업 별생산량 점유율은 일반해면어업 14.3%, 천해양식어업 64.5%, 내수면어업 21.4%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종별 도내 생산량 순위 '5'는 1위 미역류(161만t), 2위 다시마류(142만t), 3위 김류(114만t), 4위 멸치(20만 3000t), 5위 굴류(13만 4000t) 등의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식품부·aT, 나주서 지역식품中企 현장기동상담회

경영·기술·수출분야 전문가팀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지난 22일 나주에서 지역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기동상담회를 가졌다.(사진)

현장기동상담회는 농식품부와 aT에서 경영, 기술, 수출분야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다.

품질·위생관리에서부터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심층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서 참여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상담회는 동결건조식품업체인 살림산업(주)를 비롯해 액상차, 과일칩, 김치류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이날 인력수급 및 기업 홍보의 어려움, 수출시 높은 관세, 정책금리가 4%대로 너무 높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한중 FTA 체결 가속화로 농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수

출이 확대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출컨설팅 등 전폭적인 맞춤형 사후지원까지 제공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제 이대로 가다간 日 ‘잃어버린 20년’ 답습”

최경환 경제부총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펼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일본과 같은 장기 부진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는 미약한 회복세마저 주춤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닌가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의 잠재리스크로만 여겨왔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

래의 위험요소가 아니다”면서 “미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번에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가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내수 부진을 타개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성공시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

하고 있다”며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활성화로,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국민의 일자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조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해선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앞
무등 정래시장 사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여수 아파트매매

무지개아파트 7층 35평형(여수 남산동)

매매가격 1억3천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방총용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정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수익 1억1천)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21개(1층상가, 룸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원룸(3억~20억)다량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①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술빌딩(4층중 3층) 85평 신원은행 뒤,모아엘가(상가)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②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엘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용 150 용9천)

③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용70 용9천)

④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 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⑤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 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①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천역 1번 출구 2분(물수리 전제제품 신규교체 임대료,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용27 용1천)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용30 용1천)

②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

③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바없음)

④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